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에 선호하는 상임위 물어보니

민주 '지역순회투표 결과 현장 공개' 논란

'지역 현안 밀접' 지경위 4명 최다

국토해양·농림수산위 3명씩 인기 상임위 실감

기재·행안위 지원자 없어...국비확보 차질 우려

제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는 지식경제위원회로 나타났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당선자 또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광주일보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15명(박지원 원내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김동철·우윤근·이낙연·주승용 의원 등 4명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희망했다.

이어 국토해양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각각 3명씩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토해양위엔 김영록·이윤석 의원과 임대현 당선자가, 농림수산식품위엔 김승남·배기운·황주홍 당선자가 각각 희망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박해자 당선자와 이용섭 의원 등 2명이 관심을 나타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강기정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김성곤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병완 의원)는 각각 1명씩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하는 당선자 또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경제위·국토해양위·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지역의 현안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각종 규제한 사업을 다룬다 보니 짚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광주·전남지역 19대 총선 당선자 희망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당선자
법제사법	김선동
정무	강기정
외교통상통일	김성곤
교육과학기술	박해자 이용섭
문화체육	박준선·장병완 오병윤
농림수산식품	김승남·배기운 황주홍
지식경제	김동철·우윤근 이낙연·주승용
국토해양	김영록·이윤석

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광주·전남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데 둘어 상임위를 고루 배분할 방침"이라며 "초선 의원은 무대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의원들에 한해 희망 상임위를 주겠다. 상임위 협상에서 뒷거래하는 의원들에겐 절대 희망 상임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19대 국회 당선자 127명으로부터 희망 상임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6·9 전당대회 이전까지 지역·당선자 자질·선수 등을 고려해 상임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과 오병윤 당선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희망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일부 후보측 "표심왜곡" 우려 제기

광주·전남 22일 경선투표

민주당은 20일 울산, 21일 부산, 22일 광주·전남, 24일 대구·경북, 25일 대전·충남, 26일 경남, 27일 제주, 29일 세종·충남, 30일 강원, 31일 전북에서 대의원대회를 실시하고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 경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개표 방식을

그때그때 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지난 1·

19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시민참여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의 반영비율은 30%, 시민·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반영비율은 70%다. 대의원 투표는 각 지역에 실시되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실시되고, 시민·당원 투표는 다음달 5~6일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와 8일에 실시되는 현장 투표를 합산해 반영된다.

논란의 핵심은 대의원 투표다.

그동안 민주당 지역별 경선은 제주

를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했던 것이 관례였다. 표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때문에 김한길 후보 측은 "초기 일부 지역 개표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빙그레간 효과(다수 분위기로 편승한 지지집합)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 측 관계자 역시 "대의원 투표 결과 공개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기색했다.

우선, 대의원 투표 결과를 공개할 경우, 뒤이어 열리는 다른 지역의 대의원 투표나 모바일 투표를 포함한 시민·당원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의원 투표가 친노 진영에 대한 지지가 강한 울산과 부산을 시작으로 하고 있어 친노 진영의 좌장 격인 이해찬 후보에게 유리한 방언을 의도적으로 도입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지역별 경선은 제주

與 대선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쟁점 부상

비박주자들 도입 요구 이어 심재철 최고위원 공식 제안

친박계 "박근혜 훈들기" 정치공세 주장...양측 갈등 주목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여부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15일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체제를 사실상 완성한 가운데 친이계로 유일하게 지도부 진입에 성공한 4선의 심재철 최고위원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첫 최고위원회에서 "당 사무처에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실무적 검토를 해

달라"며 "황우여 대표가 어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한다 안 한다 결정되지 않았다. 여러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대선 후보를 100% 국민경선을 통해 뽑자는 것으로 정동준, 이해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9월 초 예정된 경선은 대의원 선거

인단 80%(대의원 20%·당원 30%)·일반국민 3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비박 주자들은 이러한 현행 방식대로 경선이 실시될 경우 자신들은 이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블러리를 서는 풀과 하다면서 흥행을 통한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친박계는 비박주자들의 요구가 박근혜 훈들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의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이해찬 "文-安 연대땐 책임도 공동"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역할분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므로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역할분담까지 이를 단계는 아니다"라며 "(연대해서 집권하게 되면) 당

연히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친노 세력이 대선후보로 문재인 상임고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대선후보는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당시 60만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라며 "특정한 무슨 계보나 정파에 의해 선택되는 것 아니"라고 답했다.

이 고문은 통합진보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그 당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 가지 안 좋겠지만 그 당에서 기대했던, 진보정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유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한구 "19대 국회 내달 5일 개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19대 국회 개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개원을 하겠다. 다음달 5일 개원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면서 "개원협상을 협상대로 진행할 테지

만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5일 첫 임시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국회법상(제5조3항) 총선 후 국회의 최초 임시회의는 임기개시일(5월 30일) 후 7일 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르면 다음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통합당의 국회 상임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는 상임위의 증설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다"며 "국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일 할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 같았던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어려웠던 곳이나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10억이상~100억이상 건물을 급히 구합니다.

각 지역의 폴포장 및 예식장을 급매매로 찾습니다.

매수 매도 대기 중

30년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높은 수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계속된 상담받고 있습니다.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주 전라남북도 일원의 투자가 치고 높고 보장된 물건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물건(경매, 공매)들을 안정되고 확실하게 고객님의 취향껏 정리해 드릴수 있는 바입니다.

30년 이상 부동산 중개 비법의 노하우를 가진 본 업체는 고객님의 고통을 이용해서 수수료나 몇 푼 쟁기심에 급급한 무책임한 중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상거래의 사우나·모텔·오피스텔·빌딩·상가·대지 등 고객님의 소중한 부동산으로 인해 가능성이 있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조용히 허락해 주십시오. 소중한 재산 맡고 맡겨놓을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 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011-684-3886

오피스텔 매매

총 합계 : 보증금 8,250만 월세 1,425만

▶ 지하 핸드폰전시장 1

▶ 사무실 1, 10평 27.11평 6평, 13평 4

▶ 토지면적 : 509.09m²(154P)

▶ 건축면적 : 1375.21m²(416P)

▶ 매매가 : 12억 8천만원에서 대출금 5

억원과 보증금 8,250만원을 공제하면

실투자금 6억9천7백오십만원으로

월세 1,425만원에서 대출금 6.2%

250만원을 공제하면 월수의 1,

175만원으로 연투자수익 20%

이주 우수한 투자입니다.

문의 : H.010-3605-5000

(주)오천경매 투자연구소

경매에 관한 모든상담!